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Differences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Children in
Social Skills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권 세 은**

Kwon, Se Eun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social skills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of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59 institutionalized and 60 home-reared children in Seoul. Results showed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lower in cooperation, self-assertion and self-control than home-reared children.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lower in delight, sadness, fear, and anger than home-reared children. As skills in self-control increased, the level of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bout fear increased.

Key words :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정서조망 능력(affective perspective taking), 시설 보호 아동(institutionalized children), 일반아동(home-reared children)

* 접수 2002년 2월 8일, 채택 2002년 2월 23일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Brain Korea 21 사업의 연구비 보조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E-mail : kse1976@hotmail.com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론

아동기 초기는 또래들과의 집단생활 참여나 소속 욕구가 큰 시기로, 이 시기에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Mize & Ladd, 1990; Kramer & Gottman, 1992). 또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며(양진희·최기영, 1996),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이병림, 1996; Harter, 1988).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사춘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적응을 예언하는 발달 지표로, 아동기 초기에 또래와 부적응 상태에 놓였던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동 문제나, 학업의 실패,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 1990; Rubin, 1983). 따라서 이 시기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또래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래간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집단 내 또래 지위나 또래수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사회적 기술과 사회인지, 사회적 속성 등이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utallaz, 1987). 이와 더불어, 또래관계에서 인기가 많은 아동은 우호성, 순종, 동조성의 행동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인기가 낮은 아동은 위축, 혼자 놀기, 놀리기, 친구의 요구 무시, 공격적 행동의 특성을 보였다(Chung, 1978; Gottman, 1977). 즉 인기아동은 보다 발달된 사회적 기술을 통해, 또래와 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한편(심희옥, 1999; Ladd, 1981; Putallaz, 1983), 비인기아동은 또래관계에 요구

되는 사회적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여 또래들에게 잘 수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Asher, Renshaw, & Hymel, 1982).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에는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인지하는 사회적 조망 능력이 필요하다(Walker, 1982). 사회적 조망 능력은 친사회적 행동 및 공격적 행동의 표출과 억제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보다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돕는데(Hymel & Rubin, 1985), 이러한 조망 능력 가운데 타인의 기분, 감정 상태를 추론하고 평가하는 정서조망 능력은 또래간의 수용 정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희태, 1989; 맹점주, 1995; 이미진, 1985; Gnepp & Gould, 1985). 즉, 인기아동은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추측하는 조망능력이 높으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한다(Gouley & Spritz, 2001).

한편, 시설보호 아동은 인지 발달상의 지체(Frank et al., 1996; Mirison & Ellwood, 2000; Whitman et al., 1990), 이중인격(Bowlby, 1980), 낮은 정서적 안정감, 소극적, 충동적, 낮은 사회성과 우월성(주정일, 1972) 등의 행동문제를 보인다. 또한 시설환경은 한 명의 보육사가 10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힘들며,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모델도 부족하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많은 시설환경의 특성상 보다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은 시설보호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은 입소 이전부터 물리적, 심리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시설에 수용된 이후에도 통제된 환경 속에서 희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음으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기회가 적다. 무엇보다 시설보호 아동은 대부분 편부, 편모, 이혼 등의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와 분리경험을 가짐으로써 정서적인 결핍상태에 있게 되며, 이러한 상실의 경험은 성장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된다 (Bolwy, 1980).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조망 능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설보호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낮은 학교 적응을 보이고 있다 (성미영, 이강이, 이순형, 2001)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또래관계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과제에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초기 또래와의 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누적적인 결손을 가져온다는 연구들 (Rubin, 1983)을 고려하여 볼 때, 시설환경에서 일반사회 환경으로 그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아동기 초기부터 시설보호 아동의 또래관계

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Charlesworth & Hartup, 1967; Weist & Ollendick, 1991)과 정서조망 능력(Gnepp & Gould, 1985)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달한다. 그러나 시설환경과 일반환경의 맥락적 특성으로 인해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의 발달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일반아동과 어떠한 차별적인 특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은 일반아동의 것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22개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7개 시설에 입소중인 만 5세, 만 7세 아동과 각 시설보호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만 5세, 만 7세 일반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만 5세 아동과 만 7세 아동은 각각 9곳, 7곳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었다.

연구 대상의 아동 연령을 만 5세와 만 7세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 이 시기가 되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가정

에서 일반 사회환경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아동의 삶에 있어서 또래관계의 비중은 커지게 된다. 더욱이 아동기는 또래들과의 집단생활의 참여나 소속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이후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아동의 표집시에는 다른 관련 변인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시설보호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선정하였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하지 않은 양부모가 있는 일반가정의 아동만을 조사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아동 119명 중 이 중 시설보호 아동은 59명이며, 일반아동은 60명이었으며, 만 5세 아동은 60명이며, 만 7세 아동은 59명이었다. 만 5세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으며, 만 7세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분포

구 분	시설아동 (명)	일반아동 (명)	전체 (명)
6세 남아	19	15	34
6세 여아	11	15	26
8세 남아	15	15	30
8세 여아	14	15	29
전체	59	60	119

2. 연구도구의 구성

1) 사회적 기술

아동의 사회적 기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Elliott와 Gresham(1990)에 의해 고안된 사회적

기술검사(Social Skills Rating System) 중 교사 평가용 검사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기술 척도는 협동, 자기 주장, 자아통제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각 10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점 척도로, 빈도는 해당 행동을 얼마나 자주 나타내는가에 따라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0점, '가끔 나타낸다'는 1점, '자주 나타낸다'는 2점으로,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학교생활을 잘 해 나가는데 해당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여 '중요하지 않으면' 0점, '중요하면' 1점, '매우 중요하면' 2점으로 채점한다. 사회적 기술 척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석사 과정 이상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4인 중 3인 이상의 합의에 근거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이 .95이었다.

2) 정서조망 능력

아동의 정서조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Kurdek과 Rodgon(1975)의 검사도구를 토대로 그림척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모두 12장의 흑백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도구 중 4장은 '즐거움', '슬픔', '무서움', '화남'을 나타내는 얼굴표정그림이다. 이 그림은 검사 앞부분에 제시하여 아동이 4가지 감정을 정확히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용 검사이다. 나머지 8장은 상황에 따른 주인공의 감정표정을 묘사한 그림으로, 주인공의 감정표정이 일치하는 그림 4장, 일치하지 않는 그림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그림에 대해서 아동이 정답을 말하면 '1'점, 오답을 말하면 '0'점을 주어 총점을 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조망 능력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망 척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석사과정 이상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4인 중 3인 이상의 합의

에 근거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정·보완된 조사 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 7월 11일에서 7월 24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9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시내 아동 복지 시설 7곳, 어린이집 9곳 초등학교 7곳을 방문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아동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해당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아동

을 개별면접하여 정서조망 능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에 있어서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 차이

1)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차이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은 사회적 기술 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7.85,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 기술($t=6.65, p<.001$), 자기주장 기술($t=9.01, p<.001$), 자아통제 기술($t=4.40, p<.001$)의 세 하위요인에 있어서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사가 학급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기술 수준과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수준이 얼마나

〈표 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비교

하위영역	시설보호 아동(n=59)	일반아동 (n=60)	t
	M(SD)	M(SD)	
협동	10.59(5.54)	16.27(3.51)	6.65***
자기 주장	8.49(4.52)	15.28(3.66)	9.01***
자아 통제	11.27(3.94)	14.45(3.95)	4.40***
전체	30.36(12.40)	46.00(9.05)	7.85***

*** $p<.001$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시설보호 아동은 교사가 지각하는 중요도에 비해 자기주장 기술($t=6.45, p<.001$), 자아통제 기술($t=2.52, p<.05$)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일반아동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교사가 지각하는 중요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표 3〉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수준과 중요도 비교

하위영역	시설보호 아동(n=59)			일반아동(n=60)		
	기술수준	중요도	t	기술수준	중요도	t
협동	10.59(5.54)	11.80(2.20)	-1.72	16.27(3.51)	11.47(3.02)	8.54***
자기 주장	8.49(4.52)	12.73(2.62)	-6.45***	15.28(3.66)	13.33(2.29)	3.74***
자아 통제	11.27(3.94)	12.75(2.13)	-2.52*	15.45(3.95)	12.55(1.64)	3.38**

*p<.05, **p<.01, ***p<.001

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조망 능력차이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조망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은 정서조망 능력의 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28, p<.001$). 구체적으로 기쁨($t=4.11, p<.001$), 슬픔($t=3.59, p<.001$), 두려움($t=3.24, p<.01$), 화남($t=2.55, p<.05$)의 모든 하위 정서조망 능력에서 시설보호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기쁨과 슬픔에 비해 두려움이나, 화남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이 낮았다.

〈표 4〉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조망 능력 비교

하위영역	시설보호 아동(n=59)	일반아동(n=60)	t
	M(SD)	M(SD)	
기쁨	1.42(.53)	1.78(.42)	4.11***
슬픔	1.69(.50)	1.95(.22)	3.59***
두려움	1.20(.52)	1.52(.54)	3.24**
화남	1.25(.48)	1.48(.50)	2.55*
전체	5.58(1.39)	6.73(.95)	5.28***

*p<.05, **p<.01, ***p<.001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 및 자기역량 지각 차이

1)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사회적 기술 수준 차이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사회적 기술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 기술 수준을 살펴본 경우에는, 여아의 사회적 기술 수준이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5.07, p<.001$). 즉 여아가 남아보다 협동 기술($F=41.91, p<.001$), 자기주장 기술($F=8.85, p<.01$), 자아통제 기술($F=11.89, p<.01$)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사회적 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만 7세 아동은 만 5세 아동보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F=5.24, p<.05$).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술의 하위 영역 중 만 5세 아동의 협동 기술($F=6.79, p<.05$), 자기주장 기술($F=10.21, p<.01$) 수준이 만 7세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기술

하위 영역	성별	연령		평균
		만 5세	만 7세	
		M(SD)	M(SD)	
협동	남아	8.89(4.53)	6.13(4.79)	7.68(4.78)
	여아	16.27(2.83)	13.21(3.95)	14.56(3.76)
	평균	11.60(5.35)	9.55(5.63)	10.59(5.54)
자기 주장	남아	7.95(4.49)	6.53(3.56)	7.32(4.11)
	여아	13.09(4.09)	7.71(3.67)	10.08(4.65)
	평균	9.83(4.96)	7.10(3.60)	8.49(4.52)
자기 통제	남아	9.63(4.40)	10.13(2.67)	9.85(3.69)
	여아	13.45(4.16)	13.00(2.96)	13.20(3.46)
	평균	11.03(4.63)	11.52(3.12)	11.27(3.94)
전체	남아	26.47(12.02)	22.80(9.51)	24.85(10.98)
	여아	42.82(9.46)	33.93(9.28)	37.84(10.21)
	평균	32.47(13.59)	28.17(10.83)	30.36(12.39)

〈표 6〉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기술 비교

하위 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협동	성별	742.31	1	742.31	41.91***
	연령	120.26	1	120.26	6.79*
	성별×연령	.31	1	.31	.02
	오차	974.06	55	17.71	
자기 주장	성별	142.03	1	142.03	8.85**
	연령	163.73	1	163.73	10.21**
	성별×연령	55.75	1	55.75	3.48
	오차	882.45	55	16.04	
자기 통제	성별	158.90	1	158.90	11.89**
	연령	0.01	1	0.01	.00
	성별×연령	3.25	1	3.25	.24
	오차	734.88	55	13.36	
전체	성별	2679.95	1	2679.95	25.07***
	연령	560.43	1	560.43	5.24*
	성별×연령	96.60	1	96.60	.90
	오차	5879.70	55	106.90	

*p<.05, **p<.01, ***p<.001

다음으로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수준은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만 7세 아동이 만 5세 아동보다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17, p<.01).

하위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술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분석하면,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술 하위 영역 중 협동 및 자아통제 기술수준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만 7세 아동이 만 5세 아동보다 협동 기술(F=4.10, p<.05) 및 자아통제 기술(F=12.98, p<.01) 수준이 높았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협동 기술(F=5.84, p<.05) 및 자아통제 기술(F=4.48, p<.05) 수준이 높았다.

〈표 7〉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하위 영역	성별	연령		평균
		만 5세	만 7세	
		M(SD)	M(SD)	
협동	남아	14.20(3.43)	16.27(3.60)	15.23(3.61)
	여아	16.60(3.74)	18.00(2.30)	17.30(3.13)
	평균	15.40(3.73)	17.13(3.09)	16.27(3.51)
자기 주장	남아	13.93(2.69)	16.93(3.13)	15.43(3.25)
	여아	15.47(3.83)	14.80(4.43)	15.13(4.03)
	평균	14.70(3.34)	15.87(3.92)	15.28(3.66)
자기 통제	남아	11.13(4.95)	15.87(3.02)	13.50(4.70)
	여아	14.53(2.72)	16.27(2.69)	15.40(2.80)
	평균	12.83(4.29)	16.07(2.82)	14.45(3.95)
전체	남아	39.27(9.46)	49.07(7.72)	44.17(9.84)
	여아	46.60(7.76)	49.07(8.18)	47.83(7.94)
	평균	42.93(9.28)	49.07(7.82)	46.00(9.05)

〈표 8〉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비교

하위 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협동	성별	64.07	1	64.07	5.84*
	연령	45.07	1	45.07	4.10*
	성별×연령	1.67	1	1.67	0.15
	오차	614.93	56	10.98	
자기 주장	성별	1.35	1	1.35	.10
	연령	20.42	1	20.42	1.59
	성별×연령	50.42	1	50.42	3.93
	오차	718.00	56	12.82	
자아 통제	성별	54.15	1	54.15	4.48*
	연령	156.82	1	156.82	12.98**
	성별×연령	33.75	1	33.75	2.79
	오차	676.13	56	12.07	
전체	성별	201.67	1	201.67	2.92
	연령	564.27	1	546.27	8.17**
	성별×연령	201.67	1	201.67	2.92
	오차	3868.40	56	32.94	

*p<.05, **p<.01

2)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정서조망 능력 차이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정서조망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8.33, p<.01),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영역 중 두려움(F=10.29, p<.01)과 화남(F=7.27, p<.01)에 대한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만 7세 아동이 만 5세 아동보다 두려움과 화남에 대한 타인의 정서를 잘 조망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서조망 능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공화진, 1990; 문희영, 1984; 석정미, 1979; 이현희, 1987; 이혜선, 1991; Hughes et al, 1981)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표 9〉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조망 능력

하위 영역	성별	연령		평균
		만 5세 M(SD)	만 7세 M(SD)	
기쁨	남아	1.21(.53)	1.47(.52)	1.32(.53)
	여아	1.54(.52)	1.57(.51)	1.56(.51)
	평균	1.33(.55)	1.52(.51)	1.42(.53)
슬픔	남아	1.64(.50)	1.73(.59)	1.68(.53)
	여아	1.64(.50)	1.79(.43)	1.72(.46)
	평균	1.63(.49)	1.76(.51)	1.69(.50)
두려움	남아	1.00(.47)	1.40(.51)	1.18(.52)
	여아	1.00(.45)	1.43(.51)	1.24(.52)
	평균	1.00(.45)	1.41(.50)	1.20(.52)
화남	남아	1.12(.32)	1.27(.46)	1.18(.39)
	여아	1.09(.54)	1.57(.51)	1.36(.57)
	평균	1.10(.40)	1.41(.50)	1.25(.48)
전체	남아	4.95(1.22)	5.87(1.19)	5.35(1.28)
	여아	5.27(1.42)	6.36(1.45)	5.88(1.51)
	평균	5.07(1.28)	6.10(1.32)	5.58(1.39)

〈표 10〉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조망 능력 비교

하위 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기쁨	성별	.69	1	.69	2.51
	연령	.28	1	.28	1.03
	성별×연령	.19	1	.19	.69
	오차	15.05	55	.27	
슬픔	성별	.01	1	.01	.05
	연령	.22	1	.22	.86
	성별×연령	.00	1	.00	.03
	오차	14.26	55	.26	
두려움	성별	.00	1	.00	.01
	연령	2.44	1	.44	10.29**
	성별×연령	.00	1	.00	.01
	오차	13.03	55	.24	
화남	성별	.30	1	.30	1.49
	연령	1.46	1	1.46	7.27**
	성별×연령	.36	1	.36	1.80
	오차	11.06	55	.20	
전체	성별	2.36	1	2.36	1.38
	연령	14.26	1	14.26	8.33**
	성별×연령	.10	1	.10	.06
	오차	94.08	55	1.71	

**p<.01

〈표 1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반아동의 정서조망 능력

하위 영역	성별	연령		평균
		만 5세 M(SD)	만 7세 M(SD)	
기쁨	남아	1.60(.51)	1.80(.41)	1.70(.47)
	여아	1.80(.41)	1.93(.26)	1.87(.35)
	평균	1.70(.47)	1.87(.35)	1.78(.42)
슬픔	남아	2.00(.00)	1.93(.26)	1.97(.18)
	여아	1.87(.35)	2.00(.00)	1.93(.25)
	평균	1.93(.25)	1.97(.18)	1.95(.22)
두려움	남아	1.27(.59)	1.87(.35)	1.57(.57)
	여아	1.27(.46)	1.67(.49)	1.47(.51)
	평균	1.27(.52)	1.77(.43)	1.52(.54)
화남	남아	1.53(.52)	1.53(.52)	1.53(.51)
	여아	1.40(.51)	1.47(.52)	1.43(.50)
	평균	1.47(.51)	1.50(.51)	1.48(.50)
전체	남아	6.40(.83)	7.13(1.13)	6.77(1.04)
	여아	6.33(.98)	7.07(.59)	6.70(.88)
	평균	6.37(.89)	7.10(.88)	6.73(.95)

〈표 1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반아동의 정서조망 능력 비교

하위 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기쁨	성별	.42	1	.417	2.50
	연령	.42	1	.417	2.50
	성별×연령	.02	1	.02	.10
	오차	9.33	56	.17	
슬픔	성별	.02	1	.02	.35
	연령	.02	1	.02	.35
	성별×연령	.15	1	.15	3.15
	오차	2.67	56	.05	
두려움	성별	.15	1	.15	.65
	연령	3.75	1	3.75	16.24***
	성별×연령	.15	1	.15	.65
	오차	12.93	56	.23	
화남	성별	.15	1	.15	.57
	연령	.02	1	.02	.06
	성별×연령	.02	1	.02	.06
	오차	14.80	56	.26	
전체	성별	.07	1	.07	.08
	연령	8.07	1	8.07	9.91**
	성별×연령	.00	1	.00	1.00
	오차	45.60	56	.81	

p<.01, *p<.001

다음으로 일반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아동의 정서조망 능력은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와 같이 연령에 따라서만 정서조망 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F=9.91, p<.01), 만 7세 아동이 만 5세 아동보다 타인의 정서를 잘 조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려움에 대한 정서조망에 있어서 만 7세 아동이 만 5세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F=16.24, p<.001).

3.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간의 관계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과 연령, 시설수용변수를 통제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 자기주장, 자아통제 기술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서조망 능력의 하위영역 중 기쁨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과 슬픔, 두려움, 화남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슬픔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과 두려움, 화남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3〉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간의 관계

하위 영역	협동	자기 주장	자아 통제	기쁨	슬픔	두려움	화남
협동	1.00						
자기 주장	.66***	1.00					
자아 통제	.53***	.59***	1.00				
기쁨	.08	.09	.07	1.00			
슬픔	.04	.05	.11	.32***	1.00		
두려움	.07	.17	.21*	.22*	.21*	1.00	
화남	.12	.08	-.05	.19*	.18*	.02	1.00

*p<.05, ***p<.001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의 관계에서는 자아통제 기술과 두려움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은 초기 아동기의 또래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설보호 아동 59명과 일반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의 차이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협동 기술, 자기주장 기술, 자아통제 기술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시설보호 아동의 자기 주장 기술은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낮았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자기 주장 및 자아 통제 기술 수준은 교사가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평가한 중요도 수준보다 낮은 것이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은 낮은 사회적 기술 수준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학교 적응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이 비교적 일찍부터 단체생활을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술 수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에 대해 몇 가

지 원인이 예측된다. 우선, 시설보호 아동은 시설환경의 특성상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부족하여 적절한 사회적 기술 및 행동을 습득할 기회가 제한된다. 시설보호 아동의 낮은 사회적 기술수준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순환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에게 보다 올바르고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다른 사람의 기쁨, 슬픔, 두려움, 화남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낮았으며, 기쁨과 슬픔에 비해 두려움이나 화남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서조망은 상황파악과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므로, 아동의 인지능력이 관련된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이 인지발달상의 지체로 타인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추론하지 못하고 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쁨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이 어린 시기에 발달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 아동이 다른 정서영역에 비해 기쁨에 대한 정서조망에서 일반아동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이 입소 이전부터 물리적, 심리적으

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시설에 수용된 이후에도 통제된 환경 속에서 회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음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쁨에 대한 정서를 경험할 기회가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설보호 아동의 낮은 정서조망 능력은 또래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하게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사회적 기술 수준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간에 차별적인 특성을 보였다.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협동, 자기주장, 자아통제의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아동의 경우는 협동과 자아통제 수준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기술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심희옥, 2000)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성차가 사회문화적인 수준이나 문화적인 규범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임을 고려할 때, 시설의 환경 맥락을 고려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협동 및 자기주장 기술수준이 낮아지는데 반해,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협동 및 자아통제 기술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은 낮은 사회적 기술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므로 더욱 더 사회적 기술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일반아동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보육 및 교육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서조망 능력은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었다. 즉, 시설보호 아동은 두려움과 화남 영역에서,

일반아동은 두려움 영역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조망하였다. 이는 정서조망 능력이 연령에 따라 계속 발달하며(공화진, 1990; 김희태, 1989; 최원경, 1985; Gnepp & Gould, 1985; Hughes et al., 1981; Rothenberg, 1970), 특히 두려움의 정서는 다소 늦게 발달한다(Kurdek & Rodgen, 1975)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즉, 상황과 표정이 불일치하는 본 검사의 특성상, 만 5세 아동보다 인지적인 수준이 높은 만 7세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잘 조망하는 것이다. 한편, 시설보호 아동의 기쁨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기쁨에 대한 경험의 빈곤이 누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설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즉 자아통제 기술 수준이 높은 아동은 두려움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이 높았다. 자아통제 기술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과잉행동에 대한 타인의 두려움, 화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기술이므로, 자아통제 기술이 높은 아동은 두려움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보호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사회적 기술 및 정서조망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시설보호 아동이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능성을 예언해 준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낮은 학교 적응을 보이고 있다는 선행연구(성미영 외, 2001)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의 초기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이후의 성인기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의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 시설환경에서 사회환경으로 새로운 관계에 직면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초기 시기부터 부모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사 및 교육 환경에서의 담임교사가 시설보호 아동의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져서 처음부터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일반 타인과 교류할 기회가 적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성향의 시설보호 아동을 위해 시설은 바람직한 행동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알리는 자료가 되지만, 제한된 표본을 유의표집 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독립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입소시 신상 기록 자료가 불완전하고 보육사도 아동의 성장 배경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을 밝히는데 있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소기간, 보육사의 양육태도, 입소전의 환경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에 대

해 각 시설이 제공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정서조망 능력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시설보호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규명했다. 우리나라의 시설보호 아동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주제에 제한되어 있을 뿐 사회적 기술 및 정서조망 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시설보호 아동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 직면하여 또래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변수인 학동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으로 인한 순환적인 부적 누적효과를 감소시키는 방안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연구방법에 있어서 변수에 따라 아동개별면접과 교사 설문에 의한 아동행동평가로 평가방법을 차별화시켰으므로,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고, 특히 그림척도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 제한된 언어능력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어린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문헌

공화진(1990). 아동의 공감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희태(1989). 유아의 타인 감정 추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맹점주(1995). 유아의 인기도와 타인감정 추론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희영(1984). 5, 6세 유아의 감정이입과 이타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석정미(1980). 아동 대인지각의 발달에 관한 연구: 지각, 인지, 정의적 조망 수용 중심으로. 이화여

- 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미영 · 이강이 · 이순형(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 심희옥(1999).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 · 친구의 지원 및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6), 11-22.
- 심희옥(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양진희 · 최기영(1996). 아동의 또래간의 인기도와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259-273.
- 이미진(1985). 유아기 아동의 보존 및 분류능력과 역할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림(1996). 아동의 대인 문제해결력과 또래 집단에서의 인기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희(1991). 5, 6세 유아의 조망수용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선(1991). 자극 대상에 따른 유아기 감정조망 수용능력의 발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정일(1972). *아동복지학*. 서울 : 교문사.
- 최원경(1985). 아동기의 감정조망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sher, S. R., Renshaw, P. D., & Hymel, S. (1982).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n S. G. Moore(Ed.), *The young child : Review of research III*(pp. 137-158). Washington, D. 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III*. N. Y. : Basic Books.
- Charlesworth, R., & Hartup, W. W. (1967). Positive social skills in employmen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6(4), 405-418.
- Chung, M. J. (1978). *A study of popularity, physical attractiveness, social behavior and child rearing practices in preschool children*. N. Y. : Syracuse University.
- Cole, D. A. (1990). Relation of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to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422-429.
- Elliott, S. N., & Gresham, F. M. (1990). *Social skill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 American Guidance Service.
- Frank, D. A., Klass, P. E., Earls, F., & Eisenberg, L. (1996).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orphanages : one view from pediatrics and child psychiatry. *Pediatrics*, 97(4), 569-579.
- Gnepp, J., & Gould, M. E. (198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inferences : understanding other people's emotional reaction in light of their prior experiences. *Child Development*, 56, 1455-1464.
- Gottman, J. (1977). Toward a definition of social isola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513-517.
- Gouley, K. K., & Speitz, B. (2001, April).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at risk & implication for preventio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innesota.
- Harter, S. (1988).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Huges, P. J., Tingle, B. A., &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Hymel, S., & Rubin, K. H. (1985).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problems : concep-

- tion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 issues. In G. J. Whitehurst(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II*. Greenwich, Conn : JAI Press.
- Kramer, L., & Gottman, J. M. (1992). Becoming a sibling :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85-699.
- Kurdek, L. A., & Rodgon, M. (1975).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 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43-650.
- Ladd, G. W. (1981). Effectiveness of a social learning method for enhancing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and peer acceptance. *Child Development*, 52, 171-178.
- Mize, J., & Ladd, G. W.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successful social skills training for preschool childre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rison, S. J., & Ellwood, A. (2000). Resiliency in the aftermath of deprivation : A second look at the development of Romanian orphanag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46(4), 717-743.
- Putallaz, M. (1983). Predicting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from their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 1417-1426.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Rothenberg, B. B. (1970).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and the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competence, intrapersonal comfort, and intellectual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3, 335-350.
- Rubin, K. H. (1983). Recent perspectives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 some introductory remarks. *Child Development*, 54, 1383-1385.
- Walker, A. S. (1982). Intermodal perception of expressive behaviors by human infa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3, 154-167.
- Weist, M. D., & Ollendick, T. H. (1991). Toward empirically valid target selection : The case of assertiveness in childre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1, 515-538.
- Whitman, B. Y., Accardo, P., Boyert, M., & Kendagor, R. (1990). Homelessness and cognitive performance in children : A possible link. *Social Work*, 35(6), 516-519.